

## 제7차 ASEAN+3 정상회의 참석 출국인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7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7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ASEAN+3 정상회의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동북아의 한·중·일 3개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출범 7년째인 이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중심적인 협의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협력 심화를 목표로 그동안 제시된 동아시아 협력구상의 이행방안과 각국간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는 교역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인구 19억명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역과 투자, 그리고 인적교류가 급증하면서 역내 국가간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아시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와 함께 이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도전과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나 최근의 사스 사태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전체 차원의 협력이 긴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ASEAN과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협력의 틀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역내 무역·투자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러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작성한 '동아시아 연구그룹' 보고서의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등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ASEAN 회원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지원 방침을 설명하고, 한·ASEAN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아시아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과제임을 설명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상'이 동북아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간 중에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재하여 동북아 3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할 공동선언의 채택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및 인도 정상과 개별회담을 갖고, 지역정세와 실질적 우호협력 증진방안 등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